내 고생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 애가 3:1~39)

17.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고생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고생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하게 된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옛날부터 고생고생하다 먹고 살만하면 세상 떠난다는 어른들의 말씀은 없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해봅니다. 이제 제 나이 마흔여덟 살인데 스물일곱에 이혼하고 백일도 안 지난 아들 키우며 고생고생 살아왔습니다. 저는 비록 못났지만 하나있는 아들은 과학고등학교를 2학년에 조기졸업하고 지금은 과기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갈 것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고생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암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재발까지 하다니 너무 슬프네요. 고생고생하다 먹고 살만하니 세상 떠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폐에 암이 자잘하게 있다는데 그러면 다발성전이인가요? 면역항암제는 없을까요?”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인 성 과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연 자체는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고생고생하다 먹고 살만하니 세상 떠나게 생겼으니 억울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편한 심정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살만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단순히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을 나가곤 한다는데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고 해야 할까요? 혹은 일 년에 몇 번씩이라도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의 명승지를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살만한 것일까요? 하지만 요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인생살이 고생고생하다 살만한 형편에 이르지 못한 채 세상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고생이란 어렵고 가난한 생활이고 괴롭게 애쓰면서 수고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75억 개의 고생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생은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도의 힌두교인 또는 티베트의 라마불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생을 주십니다. 석가모니가 인생이 고해(苦海)임을 깨달았을 때에도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생은 배우자의 무능함이나 못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능하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가 못 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나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못된 직장 상사 때문도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고생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 내막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생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생을 피하거나 싫어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씩씩하게 고생에 맞서거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자발적으로 고생을 해보아도 이것만으로는 고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재벌에게도 고생은 있고 노숙자에게도 고생은 있습니다.
이 고생에서 벗어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도 고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도 싫어해도 증오해도 맞서도 고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서 고생을 해서 원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고생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계신 업무가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피하고 싶다면 이러한 고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고생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알고 고생 제로의 삶을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이어지며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식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장 밖에 되지 않는 예레미야 애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애가를 시작하며 '유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52장에 걸쳐 한 것도 모자라서 애가까지 덧붙여야 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앞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집중되어온 멸망이 본문에서는 개인적 차원으로 흡수됩니다. 한 마디로 인생이 쫄딱 망한 느낌과 절망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18절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느껴지는 멸망의 참담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진저리날 만큼 생생하게 망한 인생임을 느끼게 하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고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지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고생에 처해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2절에서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라고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입장에 서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원수도 줄 수 없는 고난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과 그 이후도 이러한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라고 하였습니다. 겹치지 않는 다양한 묘사를 해가며 참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이어져가다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17~18절에서 나타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라는 말은 이 복에 대한 바람자체가 아예 끊어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탈진하게 된 것이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으로 번역 된 '네차흐'라는 히브리어는 목적과 승리 혹은 용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이 끊어졌습니다. 즉 고난이 가득한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목적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끊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환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일말의 의욕이나 생각도 없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노래를 지은 예레미야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멸망의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소망을 발견하는 반전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앞서 18절에서 삶의 조건과 상황을 호전시킬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고초와 재난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고 있었더니 예상 밖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고생이 완전히 모습을 바꾸어 소망이 되었다는 고백이 20~22절에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야 예레미야가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판에 박힌 감사의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몰라서 17~18절까지 괴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분위기가 일신되고 33절에 이르러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나자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삶에서 느껴지는 수고로움과 고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으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좋으심은 다른 말로는 거룩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발휘되는 속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곧 좋은 방향으로 구분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가장 좋은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렇듯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일체의 기대나 소원을 갖지 않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좋으심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가치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사연의 당사자처럼 암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건강은 가장 좋게 여겨지는 가치가 됩니다. 또 아들이 과기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한 것처럼 학벌이나 그로인해 파생되는 경제력도 대단한 가치입니다. 실감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좋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이렇게 좋게 여겨지던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더는 소원이나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보좌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다들 천국에 가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서 재벌 되기를 바란다든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류대학이나 일류직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이나 장관을 시켜준대도 마다할 것입니다. 믿음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또한 천국보좌를 육체의 눈으로 보듯이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건이 그러하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유무상통하며 신앙을 지켰던 이유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겼고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싶다는 고백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육체로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어떤 바람과 소원도 갖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에 대한 소원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만족하다보니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세상의 가치 없이도 마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육체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음으로 느낄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나라와 수도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이 개인적 차원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와 바람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경우를 비교해봅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좋으심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원을 갖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망해서 아무런 소원도 갖지 못하는 포기의 상태가 된 끝에 하나님의 좋으심에 눈 뜨게 된 경우입니다.
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선민들 중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나 약간의 호전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원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나타나는 과정이 역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상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몫임을 알고 하나님의 좋으심의 속성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결과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선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첫 번째 경우가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좋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경우처럼 먼저 선민들이 가지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

다. 그 결과 세상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선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마음에서 바랄 의욕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벽창호 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말로 달래는 것보다 한 번의 충격요법이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슴치고 통곡하며 사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좋으심에 비하면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고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석서들조차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 자체를 끊어버리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겪는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바람과 기대가 끊길 정도가 되려면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이를 잘 드러냅니다. 나사로의 온 몸은 헌데가 생겨서 개가 핥았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난 상처를 개가 핥아도 개를 쫓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머리털만큼의 희망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다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내 소유로 갖기 위해서는 개가 헌데를 핥아도 쫓기를 포기할 정도로 삶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개가 내 상처를 핥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조차도 갖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면 그 정도의 소원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생을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원할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봅니다. 손과 발은 못 박히셨으며, 허리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 찢어지셨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고생의 끝판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본문 18절까지 노래한 고난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예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의 속성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세상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기존에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부끄러움과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조금의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내 삶의 개선을 부탁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좋으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견딜 수 없음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예수님께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고초와 재난을 내가 당해야 할 고초와 재난으로 생각하고 동일시해야만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개선시킬 아무런 힘도 소원도 없으며 삶의 개선을 부탁드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할 때에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3절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구의 모든 가치를 다가져도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동일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소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 몫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고생들을 주심을 통해서 고생의 끝판 왕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삶이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얼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몫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대해 아무런 바람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자는 오늘도 십자가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의 본심을 올라타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마음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게 하시며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